

◆ 임상가를 위한 특집 ⑦③

▶PATIENT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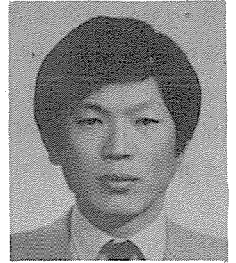
- I. 약물투여를 하지 않는 소아의 취급법..... 손 홍 규
- II. 아동의 행동조절을 위한 최면요법..... 김 영 진
- III. 약물을 사용하는 동통과 불안감 조절..... 김 종 철
- IV. 장애자에 대한 치과진료..... 김 신

I. 약물 투여를 하지 않는 소아의 취급법

(Non pharmacologic management of pain & anxiety)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조교수 손 홍 규



소아치과 영역의 진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잘 다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소아취급(management)은 기술을 용이하게 하여주고 어린이의 정신적인 손상도 적게 하여준다.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는 우선 일반적인 어린이의 정신발달과 성격발달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각 환자의 행동을 관찰 분석하고 이해해야 성공적으로 소아취급을 할수 있다. 소아환자의 취급은 여러가지 방법이 문헌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소아치과 영역에서 어린이에게 좋은 치과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린이를 잘 다루는 것이다. 성공적인 소아의 취급 문제는 기술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상도 적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아가 병원에 내원 하였을 때 협조가 안되는 것은 불안과 동통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인간의 동통과 불안에 대해서는 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이 되어 왔다.

Sternback에 의하면 동통이란 손상에 대한 개인의 느낌으로서 조직 손상을 유발시키는 해로운 자극으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동통에 대한 생물학적 기전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동통에 의하여 자극을 받아 동통으로 인식하는 동통양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동통은 미분화된 자유 신경 말단에서 인식되어 말초 신경, 척수를 통하여 시상하부에 있는 동통 중심부에 도달된다고 알고 있다. 동통을 처음 느끼는 연령이 언제인 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후각이나 청각, 시각과는 달리 뇌에서 동통 발생 자극을 인식하고 느끼는 특별한 부위는 없으며 환자가 동통을 경험하는 것은 배워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iaget에 의하면 동통은 인식능력 발달동안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라 한다.

치과 경험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치과 환자의 유형을 보면 유아나 정신 박약아 등과 같이 치과 치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 하는 집단이 있고 동통이나 손상을 주는 치과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경험상 치과 치료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집단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아 등에서 이 부모에게서 불안이 전해져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집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불안이란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나쁜 일이나 심한 공포에 대한 경험이나 의식 등에 의하여 생기며 생리적 기능으로서 불안은 동통에 대한 시발점이나 지각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동통이란 고정된 반응이 아니고 개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하여 변화되며 개인마다 동통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고 마음 상태에 따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안이 심할수록 동통에 대한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커지며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되면 동통이나 불안에 대하여 반응이 최소로 된다. 그러므로 불안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동통 해소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 문제는 소아의 발육 과정중 정신 발달과 인격 발달에 크게 좌우 되는데 이 발달 과정이 반드시 연령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각 단계를 밟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크게 분류하여 유아기 때는 치과에 내원하는 최초의 연령층으로 부모로부터 격리, 큰 소리, 광선, 기계 설비 등에 공포를 느끼며 이 때는 말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먼저 보여서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과 부모 동반이 더 효과적이다. 학령기 이전의 소아들은 의논과 모방을 좋아하므로 모든 치과 치료를 사실대로 소개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기 아동들은 집단 생활이 시작되므로 허위, 진실을 판가름 할 줄 알고 말도 잘 듣는다.

합리적인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가 왜 아프며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 도중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 날까 하는 불안을 없애 주는 것도 좋은 협조를 얻는 방법중 하나이다. 만약 소아가 심한 불안이나 동통을 호소 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정신과 의사등과 상의하는 것

이 좋다. 치과 의사는 항상 소아의 행동을 관찰·분석하고 이해해야 성공적인 소아 취급을 행할 수 있다.

어린이를 다루는 법

많은 문헌들이 소아 환자를 취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언급하여 왔으며 소아 환자를 다루는 법중 약물 투여를 안하고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1. 의사 소통
 2. 민감성을 없애는 방법
 3. 흉내 내기
 4. 모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5. 억압 방법
- 등이 있다.

1. 의사 소통

어린이를 성공적으로 다루려면 의사의 뜻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뜻을 전해 받을 수 있는 의사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와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린이의 지적, 정신적·발달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어린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면 의사 소통이 힘들게 된다. 대부분 30개월 이하의 소아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나 간혹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다. 제 연령에 맞는 생각과 단어들로 대화를 이루어야 하며 간단하게 의사 소통을 하여야 한다.

의사 소통이 가능한 3세 부터 7세정도 어린이와의 의사 소통은 정직하게 대하여 어린이라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대우를 하여 주되 확실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 대화의 내용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내용과 싫어하는 내용등을 알아서 가능한 좋아하는 화제를 택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치과 의사는 환자의 두려움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시술 과정이나 어떤 것에 무서워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이가 치과에서 갖는 공포심을 비판하는 행위 즉 '이거 하나도 무서운거 아니다. 아픈거 없다.' 등의 치과 의사의 주관적인 말과 어린이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면 어린이는 치과 의사를 불신하게 되어 자신의 두려움을 나타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 감정 상태가 더욱 복잡하여질 수도 있으며

로 치과 의사는 어린이를 이해하려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마취 주사를 놓을때 “이거 안 아픈 것이다.”라는 말보다는 “벌레 잡을때 벌레가 움직이면 아프니까 벌레 잡 재우는 약을 좀 넣자”고 이유를 잘 설명한 다음 주사에 대한 동통의 공포도 “너 모기한테 물려본 적이 있느냐? 그 정도 밖에 따끔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표현을 구사하여 어린이에게 이 치과 의사는 정직하여 자신에게 겁날 것이 없다는 걸 알게하여 쉽게 협조를 구할 수가 있다.

또한 소아가 치과 의사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요하는 것보다 스스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명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따를 것을 종용하지 말고 명령의 내용도 어린이가 복종할 능력 한도내에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 변화등으로 효과를 보는 수도 많다.

치과 의사의 주저하는 태도나 불안한 감정, 실수 등에 대하여서도 어린이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치료 내용에 대한 지식과 시술 내용의 숙달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치과 의사는 항상 어린이에게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며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 느낌을 갖도록 노력 해야 하며 치료중에는 항상 어린이의 몸 놀림, 손짓, 얼굴 표정 등을 관찰하여 대처해 나가고 치료후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구사하고 포상은 하되 내용이 뇌물인 안 되도록, 즉 치료 전에 치료를 잘 받게 하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은 뇌물이 되며 치료후에 잘 하였다고 선물을 주는 것은 포상이 되니 선물 주는 시기는 반드시 치료후가 이상적이 되겠다.

소아를 취급하는데 3 가지 필수 조건은 이제까지 언급한 치과 의사의 문제와 좀 더 가정적이며 집기도 어린이에게 알맞게 소형화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치료실 및 대기실의 환경과 환자 자신의 문제 즉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 발달등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소아 취급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2. 민감성을 없애는 방법

대부분의 소아를 보면 이미 치과에 내원하기 이

전에 일반 병원에 민감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사이다.

소아 환자의 첫 내원시 이러한 민감성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응급 환자 이외에는 간단하고 동통이 따르지 않는 술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즉 치과 의사의 소개 부터 시작하여 구강 검사치아 청소, 불소 도포, 칫솔 사용법 교육, 방사선 검사등 전혀 동통을 수반하지 않는 시술과 그 시술 내용에 대하여서도 설명하고 보여준 다음 시행하는 방법을 시도하면 어린이의 부적당한 태도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공포심을 없애 주거나 감소 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3. 흉내 내기 방법

이 방법은 협조가 안 좋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소아에게 잘 하는 아이를 관찰 시킴으로써 따라서 배우게 하는 정신적 방법이다. 소아 치과가 치료실을 개방 하여 놓는 것도 이런 이유이며 개인 치과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여 보거나 Video Film등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

4. 모친 불안의 해소 방법

어린이의 공포와 공포를 야기 시키는 많은 양상들이 가족 특히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수가 많다. 따라서 소아를 치료하기에 앞서 부모의 불안을 감소 시켜 주는 것이 첫 내원을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을 높혀준다.

부모와 환자의 격리 문제는 나이, 주위 환경, 시간, 인격 발달 정도 등에 따라 좌우되며 연령으로 볼 때는 3세 이하의 소아는 부모와의 격리가 불안감을 고조 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가 어린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등의 태도가 좀 더 효과적이며 대부분의 3세 이상 어린이에서는 부모와의 격리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부모님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협조와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치과에 대한 공포감을 말하지 말고 치과 치료를 아동의 처벌 대상으로 삼지말며 치료후 협조가 나쁜데 대한 꾸중이나 창피를 주지 말고 치과에 데려갈때 거짓 설득을 하지 말아야 하고 치과 약속 몇일 전부터는 아이에게 예고를 하여 마음에 준비를 시키고 정기적 검사를 받게 할 것과 치과에 와서는 어린이를 치과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 지시를 따를 것 등을 교육시켜 부모님도 협조 하게 해야만 한다.

5. 억압 방법

모든 방법을 시도 하여도 협조를 얻기 힘들 때는 절대 처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되 아이의 집중력을 얻고 움직임을 조정하며 적당한 행동을 일으켜 주고 상처로부터 보호하며 술자와 환자간에 편안히 시술을 하기 위해 억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Hand Over Mouth Exercise 일명 Towel technique이라고 하는데 술식은 치과 의사의 손으로 환자의 입과 코를 막으며 보호자는 손과 발로 차는 것을 막은 다음 환자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 잘 들으면 입과 코를 막고 있는 손을 놔 준다고 동의를 구한 다음 동의하면 손을 놓아 준다. 이 술식이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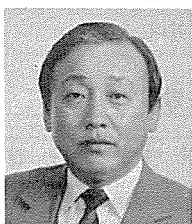
하여 협조를 잘 하게 되면 반드시 어린이에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억압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정중히 사과 해야 한다. 만일 동의만 하고 협조를 안 하면 다시 한번 시도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사 소통이 안되는 2세 미만이나 심신 장애자들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몸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억제하려는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입을 다물려고 하는 움직임도 조절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으로 나와 있다.

이상의 억압 방법을 시도 할 때 절대 처벌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함과 동시에 어린이와 부모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한다.

◇◇◇牙科医学界 消息◇◇◇◇◇◇◇◇◇◇

閔丙一 齒協 學術擔當副會長 濟州道文化賞 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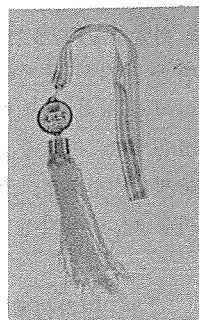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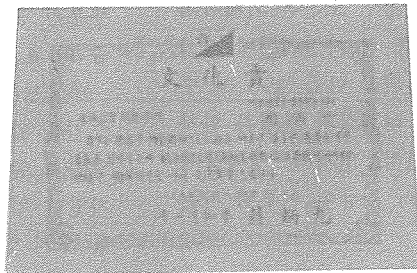
〈文化賞을 受賞한 閔丙一교수〉
서울대 齒大 口腔外科會長이며 齒協 學術擔當 副會長인 閔丙一교수가 지난 10월 20일 1986年度 濟州道文化賞을 受賞했다.

濟州道 文化賞은 濟州의 鄉土 文化 振興과 道政 또는 地域社會 發展에 현저히 貢獻한 者와 團體의 勳은 貢績을 發掘 施賞하여 이들의 功績을 宣揚하는 한편, 進道民의 귀감으로써 文化中興과 公益, 開拓의 精神을 우리社會에 擴散시키기 위해 지난 1962年度에 制定, 그간 개정 擴大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濟州道民이 아니라도 濟州道의 文化發展에 寄與한 功績이 현저한 분에게

도 施賞하고 있다.

閔丙一교수는 平素 口腔 外科 專門醫로서 언청이 수술등에 進력하여 오던중 濟州道에 언청이 患者가 많이 있어도 구강外科 專門醫가 없고 수술 비용이 크게 所要되어 醫療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가이 여겨, 1968年度에 15名을 無料 手術하여줌을 始作으로 現在까지 19年 동안 每年 定例的으로 濟州醫療院에서 道内の 不遇하고 生計가 어려운 언청

이와 口蓋破裂로 言語 소통이 困難한 患者 185명에 대하여 無料 手術(費用 환산 6억원 相當)을 베풀어 受惠者에게 希望과 勇氣를 심어주고 濟州道内 언청이 일소에 献身하였으며, 1981年 4月에는 名譽 濟州道民證을 受與, 名譽 濟州道民으로서의 功지와 使命感을 갖고 더욱 더 醫療施惠擴大에 앞장서 奉仕함으로써 濟州道의 社會福祉 向上에 貢獻한바 있다.



〈閔丙一교수가 受賞한 賞狀과 메달〉